

원 저

傳來 韓方 經驗方 및 家傳 秘法 수집

박희수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침구과

The collection of experiential prescription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d secret treatment of heirloom

Hee-Soo, Park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ion, Oriental Medical college, Sangji University

Abstract

Background & Objective : Through the long-term clinical examination experience, interesting informations have been found and passed on to future scholars, enabling research and development without going through the same lengthy procedure, hoarding these precious information to be discovered and preserved as a contribution to Oriental Medical Science.

Methods : Personal interviews with seventy-years-old practicing oriental medicine doctors and herbalists with more than 30 years of practice in Gangwon-do, Chungcheongbuk-do, Chungcheongnam-do, and Daejeon area from September to December 2002.

Key words : Individual formulas, clinical examination experience, heirloom

1. 서 론

한의학은 수천년동안 동양의학의 성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黃帝內經¹⁾에 수록된 심오한 이론을 적절히 응용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인류에게 많은 도움을 주면서 발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미래의학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현실이다²⁾.

의학은 인류의 생존과 더불어 시작되었는데, 의학적인 이론체계를 형성하는데는 반복적인 임상경험의 축적을 통하여 형성되었다. 특히 韓醫學의 원리는 陰陽五

行학설을 기초로 하여 臟腑, 經絡의 생리·병리를 설명하여 그 정체관을 辨證論治의 특징으로 하고 있다³⁾.

韓醫學은 우리의 전통의학으로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하면서 숨쉬어왔다. 현재 임상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처방과 치료법들은 선현들이 오랫동안 연구·개발하여 경험한 내용들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옛부터 조상들은 독특한 단방약재에 의한 민간요법 또는 임상경험에 의한 복합적인 치료방법에 의하여 많은 생명을 쉽게 구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우수한 경험방들이 후세에까지 전수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 아쉬움이 많았다. 이에 뜻있는 개인이나 한방각 계에서 경험방 수집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개인적인 또는 지역적이거나 국소적인 것이 대부분이었다⁴⁻²⁴⁾.

※ 본 연구는 2002-2003 상지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이는 오래전부터 국가적인 차원이거나 해당관련 협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사업으로 일찍이 추진되었어야 할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뤄져 있었다. 이에 저자는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교수연구년 기간동안을 이용하여 전국의 한의약계 원로 분들을 직접 탐방하여 대담·수집하였다. 연세가 70세 이상이거나 임상경력이 30년 이상 된 분을 우선적으로 탐방·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 자청 또는 타천에 의한 醫藥人들도 탐방하였다. 취재·수집 내용은 각종 질환에 따른 優秀經驗方을 비롯하여 침구요법, 단방요법, 민간요법뿐만 아니라 독극약물이나 일반 한약재의 수취, 법제 및 제조법 등의 사항되어서는 안 될 내용의 귀중한 자료들을 총괄적으로 수집하였다.

각 지역을 일정기간 동안 탐방하였기에 수집된 자료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방만하여 우선 중부권의 강원, 충청, 대전지역에서 수집된 질환별 治方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II. 취재연구 방법

1. 대상

탐방 취재 대상은 전국 각지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 한의약인 중 30년 이상의 임상가와 70세 이상의 원로 분을 우선 탐방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단 타천 또는 자청에 의한 경우는 기본탐방 기준계획에서 벗어났어도 취재하기로 하였다.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의 전국 탐방기간 중 각 시도별 탐방계획 순서에 따른 초기 3개월 동안의 한의약인 중 강원·충북·충남·대전 지역 탐방 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2002. 9월 강원도의 원주, 춘천, 강릉, 속초, 동해, 태백, 영월 등의 지역, ② 2002. 10월은 충청북도의 제천, 충주, 청주, 괴산, 진천, 음성 등의 지역, ③ 2002. 11월은 충청남도과 대전 지역을 탐방하였다. 천안, 아산, 논산, 예산, 홍성, 당진, 서산, 대전광역시의 중구, 동구를 비롯한 각 구와 공주, 보령, 청양 등의 지역을 탐방하여 취재하였다. 각 지역별 탐방에 활용된 교통편은 항법장치를 부착한 승용차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비행기, 열차, 버스, 택시 등의 교통편을 적절하게 이용하였다. 단, 이미 지나친 지역에 대한 탐방 취재가 필요한 경우는 시간을 내어 탐방하였다.

2. 목적

오랜 기간 동안 정통 의약을 통한 임상경험에서 터득한 독특한 내용들을 발굴하여 후학들에게 물려주어 동일한 임상내용과 시간을 거치지 않고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사장되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료들을 발굴하여 보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5,9,10}.

3. 취재내용

탐방취재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내용으로 정하였다.

1. 지금까지의 임상을 하는 동안 가장 인상적인 질환이나 기억에 남는 환자의 치료방법.
2. 일반적으로 가장 자주 접하는 질환이나 이에 활용하는 治方.
3. 흔하지는 않으나 후학들에게 꼭 알려 주고 싶은 질환의 治方.
4. 앞으로 꼭 연구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질환 및 治方內容.

단, 경우에 따라서 1-4항에 관계치 않고 취재할 수 있는 내용의 처방뿐만 아니라 독특한 제조방법에 의한 처방들을 복합적으로 수집하였다. 단방요법 또는 민간요법인 경우는 경험이 많은 일반인도 방문하였고, 침구사인 경우는 탐방 때마다 취재에 비협조적인 것이 아쉬움이었다.

III. 결 과

1. 각 지역별 취재내용

Table 1. A report of inquiries from Gangwon-do

지역	이름	질 병
원 주	박승규	정신분열증(정신과)등 5종
	황호락	축농증(오관과)등 15종
	안주성	자반병(백혈병)등 5종
	이병학	고지혈증 등 3종
	정충호	간경화 등 4종
	김종운	급성 인후염 등 3종
	진인봉	연주창 등 5종
	김교회	송진법제 등 6종
	유상기	위암 등 5종

춘천	김준목	습성늑막염 등 3종
	전은순	담석증 등 6종
	이수길	신결석 등 2종
	이성모	구토 등 5종
	이종구	하혈 등 7종
	신재윤	습성늑막염 1종
	유희영	전광(양광)등 5종
홍천	최승운	요통(신허, 어혈)등 10종
강릉	심성수	늑혈 등 3종
	최종백	중풍 등 6종
	김주열	일체옹저(결핵성, 매독) 등 12종
	최돈학	피부질환(대상포진) 등 5종
속초	김낙승	교장증 등 5종
동해	한호철	호흡기질환 등 4종
	김민기	요통일체(좌심, 어혈, 한냉성) 등 9종
태백	정호인	학슬풍 등 8종
영월	차석규	갱년기장애 등 3종
총 145 종		

강원지역은 6개시 2개군에서 26명으로부터 145종의 질환별 자료제공을 받았다. 강원도에서는 원주시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자료제공을 하였다.

Table 2. A report of inquiries from Chungcheongbuk-do

지역	이름	질 병
제천	박태기	요통 등 10종
	이우형	만성소화기장애 등 4종
	박영준	경련성항강증 등 6종
	신원화	좌골신경통 등 6종
	김진우	생리불순 등 5종
충주	이영창	간신허성 비증 등 7종
	이찬중	협심증 등 2종
	조용선	간염 등 5종
청주	박순옥	부인과 산후(후유증) 등 15종
	이병선	당뇨병 등 2종
	이성원	폐결핵 등 6종
	이세영	치통 등 5종
	강석균	맹장염 등 2종
	양구석	치통 등 2종
괴산	이인배	의부증 등 3종
진천	김병천	암질환 등 5종
음성	조항욱	호흡기(폐병) 등 3종
총 88 종		

충북지역은 3개시 2개군에서 17명이 88종의 질병증상에 대한 자료 제공을 해 주었다. 충북지역에서는 청

주와 제천에서 많은 자료제공이 있었고, 군단위에서는 극히 적은 양을 수집했다.

Table 3. A report of inquiries from Chungcheongnam-do

지역	이름	질 병
공주	이종락	항달 등 12종
	이춘규	장티푸스 등 5종
	윤종은	부인 음부소양증 등 3종
보령	신향산	자궁외임신 등 9종
	방종수	요각통 등 2종
청양	이도재	보행장애 등 6종
	윤홍수	부인하혈(장기) 등 2종
천안	엄익동	대상월경 등 2종
	윤식중	산후조리(지절통) 등 4종
	임선빈	축농증 등 6종
아산	정낙기	만성 맹장염 등 3종
	안철기	부인과 생리통 질환 등 5종
	이보철	소화기질환 등 7종
논산	소성식	위·십이지장염 및 궤양 등 3종
	이찬주	두부타박상(뇌진탕증) 등 4종
	호철환	불임 등 2종
예산	지정호	폐농양 등 2종
	곽세용	부인 불임증 등 1종
홍성	임명규	요통(어혈성, 염좌, 신허)등 2종
당진	박종량	어혈성 두면부 통증(사지)등 2종
	한기선	근골격계질환(냉성 순환기장애) 등 4종
서산	이기정	수역증 등 3종
	한기선	산후조리(신통, 시럽고 붓고) 등 4종
	박선규	보두법제 등 4종
	김기생	부인 갱년기 장애 등 4종
총 101 종		

충남지역에서는 7개시 5개군에서 25명이 101종의 질환별 증상에 따른 자료제공을 해주었다. 충남지역은 강원·충북지역에 비하여 시·군 단위가 많은 것에 비해 수집된 자료가 저조한 편이었다. 특히 협회지부 임원을 지낸 분들의 협조가 부족하였다.

Table 4. report of inquiries from Daejeon

지역	이름	질 병
대전	임태혁	구순경련 등 11종
	이상순	자궁염증 등 4종
	정동주	편도선염 등 3종
	김주병	관절염 일체 1종
	이현주	변비(소음인)등 7종

정태면	정신과 기울증 등 6종
전병재	백전풍(백납)등 3종
이창복	축농증 등 2종
강석균	고혈압성 뇌증 등 5종
정정용	생리불순 등 3종
이해운	중풍 등 1종
여영란	폐결핵 등 2종
위기량	간질 등 2종
김병한	면부종 등 2종
성훈경	근육종통(홍종통)등 1종
김화중	부인과 갱년기 장애 등 8종
유성	이현모
	위계양 등 4종
	총 65 종

대전광역시에서는 17명이 65종의 질환별 증상에 대한 자료제공을 해주었다. 광역시로서는 자료제공이 적은 편이었고, 노령화 및 부재로 인하여 탐방을 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였다.

각 시도에서 수집된 내용의 질병과 처방을 편의상 12개항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분과된 질환별로 해당처방을 정리하였다. 미처 처방명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각 처방과 관련된 내용에다 필자가 임의적으로 처방명을 명명하였다. 강원지역에서는 간담·신계질환을 제외하고는 많은 내용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고, 각종 처방 운용에 대한 내용도 다수 수집되었다.

충북지역은 3개시 2개군으로 형성되어 지역적으로 협소한 편이어서 다른 시도에 비하여 수집된 자료가 적은 편이고, 탐방취제한 곳에서 자료제공에 대체적으로 비협조적이었다. 수집된 내용 중 피부외과·정신과 및 중풍질환에 대한 자료제공이 미흡한 편이었다.

충남지역에서는 비위계통의 질환에 대한 자료가 가장 많았으나, 신경정신과 및 간·담·피부외과 질환의 자료가 미흡하였고, 심·신·중풍질환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였다. 지역적으로 시·군 단위가 많은 것에 비해 협조가 결여된 편이었다.

Table 5. Formulas that are classified into disease categories from Gangwon-do

1	간담	肝炎, 肝硬化, 膽石症, 膽石, 急性肝炎	金白五福湯, 蟠葱散, 川烏附子乾薑湯, 六味地黃湯
2	심(순환기)	高脂血, 高血壓, 不定脈, 心性浮腫, 狹心症, 胸痛	蒼蘘散, 鎮肝熄風湯, 炙甘草湯, 茯苓湯, 歸脾湯
3	비위	慢性胃病患, 泄瀉, 消化器, 食慾不振, 食積, 潰瘍, 急性盲腸, 吐瀉, 霍亂, 腸炎, 消化障礙, 胃癌, 嘔吐, 暴吐, 胃痙攣, 泄瀉, 장티푸스, 胃癌 등 各種 癌, 交腸證, 潰瘍 胃酸過多	伏泄丸, 正理湯, 寶豆烏貝散, 加味半夏瀉心湯(3배), 계백환, 大黃牡丹皮, 立效劑中丹, 加味溫經湯, 小陷胸湯+感應丸, 四苓湯, 理中湯, 仙鶴草, 참깨죽, 赤小豆瓦松湯(四君子湯), 補益湯, 活命散, 參苓白朮散
4	폐(호흡기)	外感, 咳嗽, 扁桃, 上氣道炎, 急性咽喉炎, 濕性肋膜炎, 肺, 氣管支炎, 盜汗, 自汗, 脫毛, 流行性毒感, 化膿性肋膜炎, 咽喉, 喉頭, 扁桃腺炎, 肺炎, 感氣	參蘇飲+敗毒散, 破啞蕩, 柴胡石膏湯, 柴胡四物湯, 麻杏石金湯, 六味地黃湯, 當歸六黃湯, 香砂六君子湯, 參芪湯, 蒼朮湯, 金銀花蒲公英湯, 咽和湯, 敗毒散, 麥門冬湯, 九味羌活湯+敗毒散
5	신(비뇨기)	腎, 膀胱結石, 腎性浮腫	四物湯+六味地黃湯, 平陳湯
6	부인·소아	不妊虛冷, 産後腰痛, 轉陽證, 不妊, 流産方, 産後身痛, 生理痛(乳房部), 小兒痙攣, 泄瀉, 阻, 不妊, 不妊, 生理痛, 更年期障礙, 卵巢囊腫, 消胎方, 乳汁不足, 小兒胎熱, 更年期, 火病, 子宮疾患	大溫經湯, 加味四物湯, 六味, 補陽湯(四君+六味), 四物湯, 五積散, 六一散, 比和飲, 四君子湯, 통사환(姪子丸), 加味溫經湯, 四物湯+柴胡加龍骨牡蠣湯, 芍藥甘草湯, 활성궁귀탕, 芎歸黃芪湯, 麥門冬湯, 歸脾湯, 五積散
7	ENT	蕃膿症, 中耳炎, 耳鳴脫毛, 聲嘶, 耳鳴耳聾, 耳痛, 聲嘶失音	荊敗+冬葵湯, 麗澤通氣湯, 靈砂加味方, 葛根湯, 四六湯, 酸漿[과리], 四六湯, 鷄錦湯, 歸源湯, 桔梗湯
8	신경정신과	分裂症, 憂鬱症, 不安憂鬱, 癲狂, 分裂症(邪祟), 神經衰弱	溫膽湯, 六鬱湯, 歸脾湯+溫膽湯, 癲狂夢醒湯, 安神起死湯, 全神湯
9	피부외과	버거씨, 骨節, 癩疹, 皮膚角化症, 毒, 惡瘡, 皮膚, 褥瘡, 생손알이, 骨髓炎, 痔疾, 連珠瘡, 腫瘍, 一切癰疽, 痰腫, 癰疽, 凍傷, 瘰癧(連珠瘡), 帶狀疱疹	當歸四逆湯, 四物湯, 四君子湯, 加味紅花子, 連翹敗毒散, 正氣散, 十味敗毒散, 貝母散, 土茯苓湯, 滑石散, 계란, 식초법, 仙方活命飲, 白靈사환, 救命湯, 加味通順散, 五味子金銀花湯(外用), 白靈사환, 龍膽瀉肝湯+犀角消毒飲

10	중풍	眼臉痙攣, 面癱, 半身不隨, 口眼喎斜, 言語障礙, 頭旋症(尿毒症)	酸棗仁湯, 安神定志湯, 歸脾湯+烏藥順氣散, 理氣祛風湯+歸脾湯, 필효방, 加味疎風湯, 解語四物湯, 人蔘黃芪湯
11	운동기	緊張性項強, 腰痛, 腰痛(腎虛腰痛), 關節炎, 挫閃腰痛, 頸椎디스크, 腰椎디스크, 挫閃瘀血腰痛, 鶴膝風, 肋間神經痛	防風通聖散(培方), 六味地黃湯, 大羌活湯, 如神湯, 半夏橘朮湯, 加味檳蘇散, 健腰湯, 大防風湯, 民間療法
12	기타	衄血, 白血病, 糖尿, 下血泄瀉, 重金屬, 農藥解毒, 痰厥頭痛, 濕厥頭痛, 瘀血頭痛(惡心, 眩暈), 糖尿, 補精, 益氣, 精力補強	滋陰降火湯, 犀角地黃湯, 加味地黃湯, 補腎地黃湯, 犀角地黃湯, 六味地黃湯, 四物湯, 白炭丸, 白蛇半夏湯, 四物湯, 六味地黃湯, 加味大補湯, 六味地黃湯, 八味加味方, 紫河車丸

Table 6. Formulas that are classified into disease categories from Chungcheongbuk-do

1	간담	膽石症, 肝膽(肝葉結石), 肝炎, 알콜성지방간, 酒滯(알콜성장애), 斷酒, 絶酒	藿香正氣散, 金錢草澤瀉湯, 茵陳澤瀉湯, 解醒湯, 對金飲子
2	심(순환기)	心臟瓣膜, 心火病, 怔忡, 胸痞	安心補心湯, 星香正氣散
3	비위	胃酸過多, 泄瀉, 胃炎, 消化不良, 胃病一切, 泄瀉, 胃癌抑制, 盲腸炎, 腸炎, 콜레라, 流行性出血熱	平胃散, 正理湯, 白人玄甘散, 白蔘車湯, 歸脾湯, 甲子湯, 正氣散
4	폐(호흡기)	自汗, 喘息(心臟性), 肋膜炎, 肺結核, 解休	桂枝湯, 天王補心丹, 雙花煎, 助溫湯, 補益+小柴胡湯, 清上湯
5	신(비뇨기)	腎臟結石, 小便赤澀, 胱炎實證, 臟炎, 腎盂腎炎, 小便不通	藿正散, 芎歸地部湯, 清熱湯, 正氣散, 金銀花敗醬湯, 二苓散
6	부인·소아	生理痛, 不妊(冷性), 不妊生理不順, 子宮出血瘀血證, 小兒胎毒胎熱, 小兒幽門狹窄症, 產後餘毒, 子宮出血, 房痛, 習慣性流產, 小兒麻痺, 小兒腹痛泄瀉, 妊症	桃仁承氣湯, 平胃散, 調經種玉湯, 附翼地黃湯, 安中芍藥散, 沆瀣丹, 小半夏湯, 芎歸湯, 補益湯, 枳殼青皮湯, 安胎飲, 清一瀉濕湯, 黃芩芍藥湯 + 六一散, 大補湯
7	ENT	肥厚性鼻炎, 알러지성 鼻炎, 蓄膿症, 齒痛, 생선가시	外用藥, 麗澤通氣湯, 雙和湯, 細辛湯, 陳皮散
8	신경정신과	義父症, 妻症	八物湯, 六味地黃湯
9	피부외과	皮膚炎(알러지), 走馬痰(結核性), 痔疾	連翹升麻湯, 芎夏湯, 地榆湯
10	중풍	口眼喎斜	침
11	운동기	腰痛, 坐骨神經痛, 痙攣性 項強, 坐骨神經痛, 膝關節炎, 血痺, 偏麻痺, 神經痛, 關節炎, 瘀血(打撲)腰痛, 退行性, 骨多孔症	五積散, 羌活愈風湯, 大羌活湯, 獨活寄生湯, 三氣飲, 當歸鬚散, 補骨湯 桂枝茯苓丸+苓桂朮甘湯, 當歸四逆湯, 吳茱萸湯,
12	기타	베체트씨병, 버거씨병, 癩疾性 頭痛, 糖尿, 氣痛(胸腹部), 衄血, 上消症, 體質改善, 癩疾患, 人蔘부작용, 吐血, 精益氣	平胃散, 葛根滋陰湯, 地黃湯, 三神散, 木香正氣散, 六味地黃湯, 沃川散(清心連子飲), 六味地黃湯, 小柴胡湯, 滋陰降火湯, 扶脾生脈散, 陰陽雙補湯

Table 7. Formulas that are classified into disease categories from Chungcheongnam-do

1	간담	黃疸, 肝疾患	退黃散
2	심(순환기)	本態性 高血壓, 動脈硬化	四六湯, 四苓湯
3	비위	장티푸스, 溫熱病, 霍亂, 腹痛, 食中毒, 吐瀉, 胃炎, 潰瘍, 盲腸炎, 下腹痛, 急性盲腸炎, 胃酸過多, 冷症, 心下痞滿, 胃潰瘍, 酸過多, 肉滯, 胃腸障礙, 滯症, 水逆證, 急慢性 盲腸炎, 直腸出血, 胃痙攣	三黃石膏湯, 산소당, 吳茱萸湯, 建理湯, 香砂六君子湯+小建中湯, 金銀花湯, 清鬱湯, 補中益氣湯, 香砂平胃散
4	폐(호흡기)	濕盛肋膜炎, 肺結核, 咳嗽, 喘息, 外感, 發熱, 肺膿瘍, 肺癌	大金銀花湯, 補肺地黃湯, 金水六君子湯, 敗毒散

5	신(비뇨기)	慢性膀胱炎, 膀胱炎, 小便不利	禹功散, 補益湯
6	부인·소아	陰部搔痒, 乳腫, 胎氣不安, 流産防止, 不妊, 生理痛, 産後調理, 更年期障碍	瀉白湯, 芩歸湯, 正理湯, 盤石散, 泰山磐石散, 大營煎, 暖肝煎
7	ENT	齒痛, 蓄膿症, 鼻痔症, 齒痛(風齒)	細辛湯, 荊芥連翹湯, 單方療法, 荊蘇湯
8	신경정신과		
9	피부외과	아토피 皮膚	活血消毒飲
10	중풍	口眼喎斜, 半身不隨	
11	운동기	坐骨神經痛, 流注痰痛(胸脇), 腰脚痛, 打撲傷(瘀血), 退行性腰痛, 腰痛(瘀血, 捻挫, 腎虛), 膝關節, 筋, 骨格系疾患, 腰痛一切	鹿角湯, 活絡湯, 敗醬湯
12	기타	衄血, 民間療法, 糖尿, 痛一切, 瘀血性 頭面部疼痛, 瘀血性 胸腹背痛, 腸澀症, 寶豆	雙花補心湯, 清心連子飲, 三白湯

Table 8. Formulas that are classified into disease categories from Daejeon

1	간담	肝疾患, 肝炎	茵陳胃苓湯, 清肝健脾湯
2	심(순환기)	高血壓, 高血壓(面浮腫), 狹心症	烏藥順氣散, 六鬱湯, 防風通聖散, 正和湯
3	비위	便秘, 胃痛, 食道癌, 腸癌, 神經性消化不良, 寒冷腹痛, 胃潰瘍, 酸過多, 嘔吐	歸杏湯, 雙和湯, 桃花湯, 歸脾湯+香砂六君子湯, 理中湯, 補益湯, 黑小豆白蔘湯, 黃連湯, 清胃散, 和生丹, 五苓散, 柴胡芍藥湯, 聽魂湯, 寶豆散
4	폐(호흡기)	肺炎, 扁桃腺炎, 感氣, 喘息, 急慢性 肋膜炎, 肺結核, 喘息	山查湯, 三歸蓮湯, 回陽飲, 五味子麥門冬湯, 大金銀花湯, 六味地黃湯, 金水六君煎+三子養親湯, 느티나무뿌리
5	신(비뇨기)	老人 小便不通	四物湯
6	부인·소아	子宮炎, 帶下, 更年期, 小兒 肺炎, 喘息(氣管支炎), 生理不通, 生理痛, 冷帶下, 更年期障碍, 不妊, 經不調, 生理痛, 不妊, 生理痛	敗醬湯, 逍遙散, 腎氣湯, 四物湯(培方), 芎歸秦芄湯, 降氣調中湯, 八珍湯, 五積散, 四物湯(培方), 大補湯, 五積散, 香蘇散, 歸脾湯
7	ENT	齒痛, 蓄膿症, 肥厚性鼻炎, 蓄膿症, 鼻塞	細辛自然銅煎湯, 防風通聖散, 通聖散, 四物湯
8	신경정신과	鬼癲湯症, 不眠, 七情 鬱結, 氣鬱症, 鬱火病, 痛疾, 心火, 更年期障碍	鬼顛湯, 交泰丸, 歸脾湯+麥苓白朮散, 兩資湯, 麥霄信石丸, 溫膽湯
9	피부외과	風疹, 濕疹, 面疱, 여드름, 白癜風, 癬疹, 皮膚瘙痒	消風散, 逍遙散+生地四物湯, 生血潤膚飲, 蒼蘘丸, 鍼灸(曲池), 黃芪搔痒湯
10	중풍	口唇瘻攣	平胃散, 民間療法, 針, 祛風湯, 理氣祛風湯, 烏骨鷄湯
11	운동기	膝關節炎, 肩臂痛, 關節炎, 腰痛, 關節痛, 脇肋神經痛, 筋肉腫痛, 挫閃腰痛(打撲傷)腰痛, 退行性 膝關節炎	桂芍知母湯, 三合湯, 大羌活湯, 如神湯, 金銀花連翹湯, 如神舒經湯, 三氣飲, 大補湯, 蕙熟白朮湯, 六味, 五積散, 如神湯
12	기타	糖尿, 毒, 劇藥法製, 自然銅, 衄血, 偏頭痛, 瘀血性 腦震蕩	單方療法, 六味地黃湯, 草烏, 附子, 川烏, 二陳湯+四物湯, 二陳湯, 清腦湯, 達滯散, 化痰墜血湯, 聽魂湯, 修治法

대전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각 질환별 자료가 고른 편이었으나 간담·신(비뇨기), 중풍질환에 대한 자료가 적었다. 그러나 비위계통 질환과 부인·소아 및 운동기, 신경정신과 질환에 대한 자료가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많았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탐방한 곳이 적었으며 탐방한 곳에서도 다양한 자료제공을 받지

못하였다.

각 질병의 증상별 분류를 4개 시도별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운동기계와 비위계 질환과 부인·소아 질환이 비교적 많았고, 중풍에 관한 수집된 자료가 부족한 편이었다.

V. 고 찰

의학은 인류의 생존과 더불어 존재하였는데 의학적인 이론체계를 형성하는 데는 반복적인 임상 경험의 축적을 통하여 형성되었다. 東洋醫學은 陰陽五行學說을 기초원리로 하여 인체의 臟腑, 經絡의 生理, 病理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그 整體觀을 辨證論治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학문이다^{23,5)}.

수천년 동안 東洋醫學의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黃帝內景⁴⁾은 陰陽五行學說을 비롯한 각종 기초이론을 정립하여 설명하면서 임상적인 治方들을 수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그 원리에 근거하여 여러 국가에서 연구 개발하면서 임상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연구개발내용들이 기록되지 못한 채 부전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많은 임상 연구자들이 같은 내용의 임상 경험을 반복해야하는 아쉬움을 남겨 주고 있다^{23,5-12)}. 이와 같이 다각적으로 비경제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東洋醫學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보이지 않는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된다¹⁵⁻¹⁶⁾.

우리나라는 東洋醫學을 韓醫學이라는 미명아래 자주적인 의학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는 한약업사와 또한 일제시대에 자격증이 주어진 침구사, 요즘 배출되고 있는 한약사 등의 인력이 각각의 주어진 영역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형편이다¹⁷⁻²⁴⁾.

특히 전국의 원로 한약업사는 한의과대학이 설립되어 한의사를 배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나 지금 현재는 한의사보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한의약발전 정책에 힘을 모으고 있다. 2002년 통계에 따르면 한의사와 한약업사의 평균연령이 비공식적이긴 하나 한의사 37세, 한약업사 68세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한의과 대학에서 매년 배출되고 있는 젊은 한의사들의 연령이 낮은 반면 많지 않은 원로한의사분들이 작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²⁵⁾. 이러한 평균연령의 격차현상은 점차 더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해보아 원로 한의약인을 탐방하여 우수 경험치방들을 취재해야 함은 시급한 과제라고 보여져, 필자는 1970년대부터 필요성을 느끼고 시간적·경제적인 틈새를 보다가 2002년 9월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원로 한의약인을 탐방하였다.

탐방취재 계획은 2002년 9월 강원도, 10-11월 충청북도, 충청남도과 대전, 12월과 2003년 1월 대구·경북, 2

월 부산, 3월 경남·울산, 4월 전남·광주, 5월 전북, 6월 경기·인천, 7·8월 서울지역 등을 특별한 경우외에는 순서대로 탐방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타 지역에서는 500인을 탐방하여 많은 수확을 얻었으나, 서울 지역은 지금까지 전국을 탐방한 원로분들의 수보다 많아 시간적인 부족으로 아직 끝을 맺지 못한 실정이다.

탐방취재중의 어려움은 육체적이나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정신적인 어려움이 더욱 컸다. 어렵게 찾아간 탐방지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수모를 겪을 때도 있어 탐방취재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돌아서고 싶은 심정도 여러번 있었다. 반면에 필자의 탐방취재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식대나 차량유류비 등의 격려금을 전해 준 경우도 다수 있었다.

탐방취재중의 아쉬움이라면 한의사보다는 한약업사가 더욱 호의적인 취재협조를 해 주었던 점이다. 또 침구사를 탐방한 경우에는 대부분이 취재에 비협조적이었다. 취재내용에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수십년 동안의 임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질환이나 치유된 환자의 치방과 후학들에게 남기고 싶은 내용, 앞으로 꼭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치방에 대한 것이었다. 이는 정통 한의학의 맥을 이어감에 있어 시간적으로 비경제적인 임상시험이 반복되는 것을 지양하고, 직접 임상을 연구개발 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저자는 1년동안 수집된 내용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초반 3개월 동안 탐방한 강원·충청권 지역에 대한 것만을 첫 보고 내용으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수집된 내용들을 질환별 증상으로 구분하여 편의상 12개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단, 취재중에 처방명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은 필자가 임의적으로 처방명을 붙였다.

탐방결과 강원도는 6개시와 2개군에서 26명으로부터 145종의 질환별 처방을 취재할 수 있었다.(Table 1) 특히 원주와 춘천지역에서 다수의 귀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충청북도는 3개시 3개군에서 17명으로부터 88종의 질환별 처방을 취재할 수 있었는데 청주와 제천에서 대체적으로 많은 자료를 제공받았으나 군 단위에서는 미흡하였다.(Table 2) 충청남도에서는 7개시 5개군에서 25명으로부터 101종의 질환별 처방을 제공받았으나 타지역의 시군단위가 많은 것에 비하여 수집된 자료는 저조한 편이었다(Table 3). 대전지역에서는 17명이 65종의 질환별 처방을 제공해주었다. 광역시로서는 회원숫자에 비하여 자료제공이 적은 편이었고 탐방계획

중의 다수인은 부재 혹은 노령화로 인하여 취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Table 4). 특히 지부장을 역임한 사람 등 한의계에 약간의 얼굴이나 이름이 알려진 인사들의 협조가 아쉬움이었다.

전 지역에서 탐방계획에 들어 있었던 분들 중 이미 유명을 달리하여 만날 수 없었던 경우와 탐방후에 유명을 달리한 소식들 듣는 경우도 있어 마음이 아팠다.

지역별 질환에 따른 종합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지역에서는 간담, 신계질환을 제외하고는 많은 내용의 자료와 각종 처방의 운용법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Table 5). 충북지역에서는 피부외과, 중풍, 신경정신과 영역에 대한 자료제공이 적은 편이었다(Table 6). 충남지역에서는 비위계통의 질환에 대한 자료가 가장 많았으나 신경정신계 및 간담, 피부외과 질환의 자료는 저조하였다. 아울러 심, 신, 중풍질환에 대한 자료도 부족한 편이었다(Table 7). 대전 지역에서는 각 질환별 자료제공이 고른편이었으나 간담, 신계, 중풍질환의 자료제공이 극히 적었다. 그러나 비위, 부인, 소아 및 운동기계 질환의 자료가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Table 8). 이상의 결과로 보아 강원·충북·충남·대전의 4개시도에서 수집된 질환별 처방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Table 9).

Table 9. Comparison of reports that are classified by diseases from Gangwon-do, Chungcheongbuk-do, Chungcheongnam-do, and Daejeon area

분류 지역	강원	충북	충남	대전	비고
간담	5	7	1	1	14
심(순환기)	6	4	2	2	14
비위(소화기)	20	11	23	14	68
폐(호흡기)	17	6	8	7	38
신(비뇨기)	5	6	3	1	15
부인·소아	20	15	10	12	57
ENT	10	5	13	4	32
신경정신과	6	2	1	8	17
피부외과	18	3	1	7	29
중풍	8	1	2	1	12
운동기	19	13	18	4	54
기타	11	15	19	4	49
합계	145	88	101	65	399

운동기계와 비위, 부인, 소아질환에 대한 자료는 비교적 많았으나 중풍에 대한 자료는 적은 편이었다.

12개 항목별 수집내용은 간담 14, 심(순환기) 14, 비위 68, 폐(호흡기) 38, 신(비뇨기) 15, 부인·소아 57, ENT 32, 신경정신과 17, 피부·외과 29, 중풍 12, 운동기계 54, 기타 49으로 총 399종의 질환별 처방이 수집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강원, 충청(대전)권에서는 비위계통의 소화기 질환과 부인·소아과계통의 질환에 대한 자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과 충남에서 소화기계 질환의 治方 활용빈도가 높았다. 부인·소아과 질환은 강원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 호흡기 질환의 경우로 강원지역의 청정한 공기에 걸맞지 않게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주야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기타의 36종은 인체의 陰陽偏差에 의한 증상들로서 기능조절에 관여되는 제반 증상에 대한 것이었다.

피부·외과에 관한 治方들이 다수 수집된 것은 강원 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사독, 곤충 등의 병해충으로 인한 治方이 많은 것으로 보여 졌다.

그러나 중풍 증상에 관한 治方이 가장 적게 수집되었는데, 최근 갈수록 중풍환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수집노력과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머지 항목에서는 고른 분포의 질환별 治方들이 수집되어 전국적인 탐방취재의 기준적인 비교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V. 결 론

전국의 優秀經驗方 탐방 취재를 위하여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수집된 질환별 처방 중 강원, 충청지역(중부권)에서 탐방 취재한 내용만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 중부권 지역에서 수집된 질환별 治方은 399종이었고, 이중 강원지역이 141종으로 가장 협조적인 취재를 할 수 있었다.
2. 수집된 질환별 治方을 12개 항목으로 분과하여 정리한 결과 비위(소화기)계 질환에 대한 처방이 68종으로 가장 많았다.
3. 부인·소아과 질환에 관한 治方은 57종이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수집되었다.

4. 중풍질환에 대한 자료가 12종으로 가장 적었으나, 나머지 질환에 대한 治方들은 고른 분포로 수집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수집빈도가 높은 질환의 우수 治方으로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중풍환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이에 대한 자료수집 및 연구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졌다.

VI. 참고문헌

1. 王氷. 黃帝內經素門·靈樞註, 서울 : 大星文化社, 2000.
2. 박희수. 요법회통. 서울 : 도서출판새천년, 2000.
3. 배병철. 기초한의학. 서울 : 성보사부설 전통의학연구소, 1997.
4.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산동문회. 임상경험처방집. 1970.
5. 이희중. 경험요감. 1987.
6. 박순달. 연곡 임상경험집. 서울 : 일중사, 1998.
7.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산동문회. 임상경험처방집 2집. 1975.
8.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산동문회. 임상경험처방집 3집. 1991.
9. 경남 七·五 동기회. 전국 한약업사 비방집. 1985.
10. 서울시 한의사회. 임상경험방. 서울 : 신화, 1985.
11. 청구 한의학 연구회. 청구 임상처방집. 1983.
12. 청구 한의학 연구회. 청구 임상처방집. 1985.
13. 허송암. 한방경험학낭. 전국한방의학 종합연구회, 1958.
14. 부산지구 동양의학회. 임상 경험방. 1998.
15. 대한 한약학회. 동의처방신찬. 학술위원회, 2001.
16. 이중대. 한방임상비방집. 서울 : 일중사, 2002.
17. 대한 한약협회학술위원회. 대한한약 창간호. 1997.
18. 대한 한약협회학술위원회. 대한한약 2호. 1998.
19. 대한 한약협회학술위원회. 대한한약 3호. 1999.
20. 대한 한약협회학술위원회. 대한한약 4호. 2000.
21. 대한 한약협회학술위원회. 대한한약 5호. 2001.
22. 대한 한약협회학술위원회. 대한한약 6호. 2002.
23. 대한 한약협회학술위원회. 대한한약 7호. 2003.
24. 대한 한약협회학술위원회. 대한한약 8호. 2004.